

도쿄국립박물관, 특별전, 고대 그리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여행, 2016.6.21.-9.19



지중해와 에게해 그리고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스파르타, 키클라데스 섬들, 그레타 섬 따위 이번 전시회의 유물들이 나온 지도이다. 이곳들이 고대 그리스 문명이 꽃피웠던 곳이며 그 영화르 간직한 곳이다.

그리스 조각, 프레스코 벽화, 금속제품 따위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신석기 때에서 헬레니즘 때까지 각 시대별, 큐클라데스(키클라데스, Cyclades) 여러 섬, 크레타(Kρήτη, Crete) 섬이나 에게 해 섬들, 아테네, 스파르타, 마케도니아 따위 그리스 여러 곳에서 꽃피웠던 미술을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봅시다. 그리스에서 나온 유물 작품으로서 가장 규모가 큰 미술 전시회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크고 작은 그리스 유물 325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1장, 고대 그리스 세계의 시작, BC.6800-1100 무렵 -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된 에게해 문명

고대 그리스를 둘러보는 여행의 시작은 미노스문명보다도 몇 천 년이나 오래되었다.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된다. BC.7000년 무렵 그리스 사람들은 정착하여 농사를 짓거나 목축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 때 사람들은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장례식을 위해서 사람 모양의 조각상을 만들어 신들에게 기원하는 봉헌물로 사용하였다. 그후 BC.3200년 무렵 그리스는 초기 청동기 시대가 된다. 에게해 한 가운데 키클라데스 여러 섬들에서 꽃 피웠다. 독특한 대리석 작은 조각상으로 알려진 키클라데스 문명이 잘 알려져 있다. 사람 모습을 추상적으로 나타낸 변화무쌍한 작은 조각상에서 그리스 세계의 원천을 느낄 수 있다.

	<p>1 스페도스형여성상, BC.2300, 구포니시아</p> <p>초기 청동기 때 키클라데스 특유의 대리석 작은 조각상이다. 팔을 가슴에 교차시키고, 두 다리를 붙여서 늘어뜨린 전형적인 모습이다. 가슴과 아랫배가 뚜렷이 나타나있다. 코만 그린 둥근 얼굴이 인상적이지만 처음에는 눈이나 입, 머리카락 따위를 물감으로 그렸었다. 이 여성상은 75cm 높이, 너비:16.3크기로 다른 것들에 비해서 비교적 크다. Spedos variety, Museum of Cycladic Art, Athens, Greece</p>	<p>2 여성상, 후기신석기 시대, BC.4500-BC.3600</p> <p>여성像, 크레타 섬 이라베토라, 가트·호리오 출토 높이:14.7cm, 재료 : 진흙 이라크리온 고고학 박물관 소장</p>
--	--	--

2장, 미노스 문명(BC.3200-BC.1100년 무렵) -

미노스문명은 에게해 남쪽에 뜬 크레타 섬에서 꽃 핀 개방적인 바다 문명이다. 미노스왕 전설에서 미노스 문명이라고 부른다. 크레타 문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BC.2천년 무렵 나타난 크눓소스 따위 크레타 섬 여러 곳에 지어진 궁전은 정치뿐만이 아니고 종교, 경제, 수공업 따위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거룩함을 상징하는 수소나 두날 도끼를 사용한 제사 도구나 바다 모티브로 꾸민 토기, 섬세하며 아름답게 꾸며진 장신구 따위가 있다. 화산 분화로 묻힌 테라 섬 아크로티리 유적에서 나온 화려한 프레스코 벽화나 크레타의 조각 미술이나 공예기술을 전하고 있다.

	<p>1 어부 프레스코 벽화, BC.17C.</p> <p>테라(산토리니 섬), 아크로티리 마을, 서쪽 집 다섯 번째 방, 테라 선사박물관(Museum of Prehistoric Thera) 소장, 두 손에 많은 생선을 들고 있는 젊은이가 크고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아마도 그는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신에게 풍어를 고마워하기 위해서 제물을 올리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 그림이 그려진 뒤 테라 섬에는 화산이 분화하여 아크로티리 마을은 화산재에 묻혀버린다. 그 때문에 이 그림은 전해지고 있다. 높이:117.5</p>	<p>2 수소형 뿔잔, BC.1450년 무렵, 후기 미노스 기</p> <p>크레타 섬, 자크로스 궁전 신전 창고에서 출토, 이라크리온 고고 박물관 소장, 검은색 녹니석을 파서 새겨 만들었다. 털을 흉내 낸 듯한 반점 무늬가 여러 가지 조각 솜씨로 잘 나타나있다. 크눓소스 작은 궁전에서 나온 비슷한 유물처럼 아마도 이 모습도 뿔잔의 장식부분이다. 목 위, 턱 아래에 작은 구멍이 있고, 불에 액체가 흘러내리도록 만들어졌다. 연회용이 아니고, 종교 의식용 제사 도구로 보인다. 높이:25.5cm,</p>
--	---	--

	<p>3 바다양식포도주항아리(海洋樣式의葡萄酒甕)</p> <p>후기 미노스 기(BC. 1450년 무렵), 크레타 섬, 자크로스 궁전(Zakros Palace)터 출토, 높이: 53.8cm, 재료: 진흙, 이라크리온고고학박물관 소장</p>	<p>4 가마스레식 새 부리 모양 주전자</p> <p>가마스레식 토기(Kamare ware)는 고대 그리스 에게해 문명 가운데 크레타 섬에서 번영한 미노아 문명을 대표하는 토기나 도기 가운데 하나를 가마스레식이라고 부른다. 중기 미노스 기(BC.1750-BC1700년), 크레타 섬, 페스토스 궁전 출토, 높이:27.5cm, 재료:진흙, 이라크리온 고고학 박물관 소장</p>
--	---	---

3장, 미케네 문명(Mycenaean Greece, BC.1600-BC.1100년 무렵), 부의 상징, 권력자의 자랑거리 - 황금

그리스 본토 미케네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미케네 문명은 점차 힘을 키워 BC.1450년 무렵 크레타 섬을 정복한다. 그 미술은 미노스 문명의 영향을 받았지만 도시는 크레타 궁전과 달리, 호메로스의 일리아드(BC.8C.)에 비견될 만한 견고한 성벽으로 보호되었다. 권력자들은 뛰어난 전사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죽은 뒤 멋진 갑옷이나 황금 꾸미개 따위로 장식되어 묻혔다. 하인리히 무리만(하이브리히 뮈리어만)에 의해 발굴된 지배자 무덤에서 나온 황금 제품들이다.

	<p>1   상아에 새긴 군인, BC.14-BC.13, 키프로스 공방, 데로스 섬, 아르테미스 신전 지역에서 출토, 데로스 고고학 박물관 소장, 멧돼지 어금니장식 투구를 쓰고, 8자 모양 방패를 든 군인이 새겨져 있다.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된 문학 작품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는 미케네 때부터 몇 백 년이나 전승된 트로이 전쟁을 노래한 것이다. 여기서 영웅 오디세우스는 멧돼지 투구를 쓰고 있다. 마치 이 조각상이 바로 그 모습이다. 높이:11.8, 너비:6</p>		<p>2   원형 장식판, BC.16C. 후기, 미케네 원형무덤 출토, 아테네 국립 고고학 박물관 소장, 하인리히 뮐러만은 트로이아에 이어서 1876년 미케네에서 발굴을 했다. 그는 아가멤논의 황금 탈을 발굴하였다. 빛나는 황금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서 노래한 황금의 미케네 그대로이다. 지름:5.5-6.8cm</p>
	<p>3   두 손잡이 항아리(鑿壺) 후기 헤라딕(Helladic period) III C 期 (BC.1200 ~ BC.1100년) 애틀리카(Attika, 独: Attika) 지방, 폴트·라흐티, 헤라티 무덤 출토, 높이:24.5cm, 재료: 진흙, 브라운 고고학 박물관 소장</p>		<p>4   멧돼지 어금니형투구와 8자형 방패 BC.1375~BC.1250년 레티무노 고고학 박물관 소장 8자형 방패, 재료: 상아 아테네 고고학 박물관 소장</p>
	<p>5   구리 칼(銅劍) 위에서 두 자루는 BC.1320~BC.1200년, BC.12~BC.13C. 키오스 고고학감 사국 소장, 아래 두 자루는 BC.11C. 아그리니온 고고학 박물관 소장</p>		
<p>4장, 기하학 양식에서 알카익(Archaic, 고졸기) 시대(BC900년 무렵-BC480년)</p>			
<p>미케네 문명이 사라진 뒤 긴 암흑기를 지나 BC.1000년 무렵 그리스는 서서히 긴 잠에서 깨어난다. 이 때를 기하학 양식 시대라고 한다. BC.8세기 무렵에는 그리스 여러 곳에서 도시국가가 생기고, 그리스 문자가 생겨난다. 이어서 BC.7세기 무렵 동방화 양식 때에는 기하학 무늬가 오리엔트에서 시작된 동물이나 식물 모티프로 바뀌고, 신들이나 사람을 표현하는 것도 급증한다. 그리고 7세기 말엽부터 6세기 알카익 때에는 드디어 등신대의 대리석 조각이 등장한다. 사람을 매료시키는 알카익 스마일(Archaic smile, 고졸기)을 체험할 수 있다. <b>アルカイック</b></p>			
	<p>1   크로스 상, BC.520년 무렵, 보이오티아지방(Boeotia/Boeotia, Beotia, Boeotia) 프토이온산 아폴론 신전 부근 출토, 아테네 국립 고고학 박물관 소장, 알카익 시기 별거벗은 남성 조각상을 크로스(kouros, 그리스말, 청년) 상이라고 한다. 여성상은 동방의 영향이 강한 것에 비해서 크로스 상은 양손을 허벅지에 대고 똑바로 서있다. 한쪽 발이 약간 앞으로 나간 것은 분명 이집트의 영향이다. 이 작품은 알카익 후기 것으로 근육 표현이 자연스럽게 강조되어 있고, 두 팔도 허벅지에서 떨어져 움직이는 듯한 힘이 덧붙여져 있다. <b>ク-ロス</b>, 높이:160cm</p>		<p>2   크레 상, BC.520년 무렵,(クレ-像)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에레크테이온에서 출토,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소장, 알카익 때 옷을 입은 여성 입상을 크레라고 한다. 조각 기법의 변화와 더불어 BC7세기 말엽 그리스에서 대리석 조각이 시작되었다. 이 조각상은 키톤을 입고 얇은 망토를 거치고 있다. 오른손으로 옷자락을 쥐고 있다. 망토 가장자리에는 색을 칠한 흔적이 남아있다. 섬세하게 물결치는 듯한 머리카락이나 멋진 옷도리 따위에서 조각가의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엿볼 수 있다. 높이:95.4cm</p>
	<p>3   아티카 기하학무늬 암포라 용기 아티카(Attika, 아테네 지역 이름) 기하학무늬 암포라(amphora) 용기 BC.850~BC.800년, 케라메이코스(Κεραμεικός, Kerameikos) 무덤 출토, 높이:82.0cm, 재료:진흙, 아테네 국립 고고학 박물관</p>		<p>4   피블라, 옷핀 <b>フィブラ (留め具)</b> BC.660년 무렵 스파르타. 아르테미스·오르티아 신전(The Temple of Artemis Orthia at Messene) 부근 출토, 높이:8.0cm 너비:5.5cm, 재료:뼈, 아테네 국립 고고학 박물관</p>
<p>5장, 클래식 시기, BC.480-BC.323년, 아름다움의 기원, 신들에게 바라다</p>			
<p>BC.509년 아테네에 민주정이 이행되고, 두 번에 걸쳐 페르시아 군을 물리치고 클래식 시기에 들어간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지어지고, 연극이나 철학이 성행한다. 뒤에 서양 미술에 큰 영향을 주는 조각, 그림 표현이 생겨난다. 인간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낸 미술 작품과 오스트라키스모스(ὄστρακισμός, Ostracism, 도기조각 추방) 이름이 새겨진 사금파리나 공직자를 공평하게 뽑는 제비뽑기 도구가 민주정을 증언한다. 또한 사람들은 신들에게 어떻게 기원을 하고 제물을 바쳐야 하는지 아폴론, 아르테미스, 데메테르와 고레 더욱이 아스쿠레피오스(Æsculapius / Aesculapius,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명의) 신앙도 강조된다.</p>			
	<p>1   데미스토클레스 이름이 쓰인 오스트라콘(ostrakon) 사금파리 추방 조각, BC.472 아테네, 아고라 광장에서 출토, 아테네, 고대 아고라 박물관 소장, 높이: 6.5 cm 데미스토클레스(Themistocles, BC.493-BC.492)는 집정관으로 아테네를 그리스 유일의 해군국으로 성장시켜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BC.510년 아테네는 참주정(僭主政, せんしゅせい, 古代ギリシア語: τυραννος (tyrannos); 英語: tyrant)을 없애고, 민주정으로 바뀌었다. 다시 참주정이 생겨나지 못하도록 시도한 정책이 사금파리 추방이다. 참주가 될 두려움이 보이는 자의 이름을 도기 사금파리에 써서 투표했다. 6천 표에 이르면 1 명이 10년 간 아테네에서 추방되었다. 이 도기 사금파리는 BC.472년 추방된 데미스토클레스 이름이 쓰여 있다.(ὄστρακον ostrakon, 複數形 ὄστρακα ostraka)</p>		

2. 東京國立博物館, 特別展, 「古代ギリシャ-時空を超えた旅-」, 2016.6.21.-9.19(월), <http://www.greece2016-17.jp/>, 나가사키현미술관, 2016.10.14.-12.11(일), 고베시립미술관, 2016.12.23.-2017.4.2.(일)

	<p>2 봉납(奉納) 부조 아폴론(ΑΠΟΛΛΩΝ, Ἀπόλλων, Apollōn, 그리스 신화의 남신, 제우스 아들, 예능, 예술, 양치기 수호신, 광명신), 아르테미스(ΑΡΤΕΜΙΣ, Ἄρτεμις, Artemis), 사냥, 정결, 달의 여신, 레트(Λητώ, Lētō) 여신, BC.5C.말, 아테네, 프라카 지역 출토, 높이:70.0cm, 너비:69.0cm, 재료:대리석, 아테네국립고고학박물관 소장</p>		<p>3 아티카(Attika) 크라텔(kratēr) アッティカ赤像式萐型クラテル, 디오니소스(Dionýsos)와 아리아드네(Ariadne), 포세이돈(Poseidōn)과 아뮤모네(Amymonē), BC.390~BC.380년, 출토지:?, 높이:27.5-27.9cm, 지름:27.1-27.3cm, 바닥 지름:13.0cm, 재료:진흙, 아테네국립고고학박물관 소장, 크라텔은 포도주와 물을 넣어서 섞을 때 쓴다.</p>
	<p>4 아리스토텔레스상,1세기,아테네,아크로폴리스박물관터출토,대리석,아크로폴리스박물관,높이:45.5cm 아리스토텔레스(Ἀριστοτέλης, Aristotélēs, 羅:Aristotelēs, BC.384-BC.322.3.7) 플라톤의 제자이며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더불어 서양 최대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여러 분야에 걸친 업적으로 만학의 아버지라고 한다. 특히 동물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고대 세계에서 처음 이루어졌다. 이슬람 철학이나 스콜라 철학, 근대철학, 논리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로도 알려져 있다. 앎(sophia)을 사랑(Philo)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깨달음으로 필로소피(Philosophia)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Aristos)와 목적(telos)에서 왔다.</p>		
<p>6장, 고대 올림픽, BC.8세기 올림피아 제우스의 거룩한 곳에서 4년에 한번 축제가 열렸다. 처음에는 경주자만이 5종 경기(달리기,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달리다 넓이 뛰기, 레슬링)나 종합격투기, 경마나 마차 경주 따위로 시작하여 점차 경기 수를 늘려 전 그리스에서 선수들을 모아서 큰 경기 대회로 발전했다. 우승자는 명예를 얻어, 그 조각상이 신전에 올려졌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경기자나 우승자 모습을 새겨 신전에서 신에게 올린 것들이다.</p>			
	<p>1 파나텐 축제(Panathenaic festival) 암포라 고대 그리스에서 보신을 주먹에 가중을 감아서 한 쪽이 넘어지거나 항복할 때까지 싸웠다. 겨야거나 차거나 금소를 공격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시합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서로 얼굴을 때리거나 오랫동안 잡는 자가 승리할 수 있었다. 파나테나 이아형 암포라는 경기 축제의 우승 상품이었지만 이것을 그것을 본떠서 작게 만들었다. BC.500년 무렵, 아이기나 섬 출토, 높이:19.0cm</p>		<p>경기자조각상,BC.2C 후반,아티카지방,아레우시스출토 고대 올림픽은 각 종목 우승자에게 올리브 관을 씌여주었다. 최상의 명예로 그 모습이 동상으로 만들어져 신에게 올려졌다. 이 대리석조각상은 클래식 때 유명한 경기자 조각상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헬레니즘 때의 자유 활달한 모습이다. 올려진 오른손에 우승자 관을 머리에 놓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높이:105.0cm</p>
	<p>3 원반을 던지는 작은 조각상 BC.500년 무렵, 테바이(Θήβαι /Thēbai, BC.371-362 무렵 주변 장악),가베이로이(Kabeiroi)신전 터 출토, 높이:18.0cm, 재료: 청동, 아테네 국립 고고학 박물관 소장</p>		<p>4 아티카(Attika) 흑상식 화장그릇(pyxis) アッティカ黒像式ピュクスス전차경주(戰車競走) BC.510년~BC500년 / 출토지:?, 높이:8.3cm, 재료:진흙, 아테네 국립 고고학 박물관 소장</p>
<p>7장, 마케도니아 왕국, 오래된 그리스 세계와 달리 그리스 북방의 마케도니아는 금이 풍부하게 나는 곳이다. 마케도니아 왕국이 생기기 전부터 권력자 무덤에는 많은 황금 장식품들을 부장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신석기 시대부터 BC.4세기 말 알렉산드로스 시대, 헬레니즘 때 무덤에 걸쳐 관이나 금 장식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서 발견된 알렉산드로스 초상은 그가 20 세 무렵 새겨진 것으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작품이다.</p>			
	<p>1 은매화(銀梅花) 금관,BC.4C, 후반 지름:20.9cm, 데루베니(고대 레테) 무덤에서 출토, 뱃살로니키 고고학 박물관 소장, 마케도니아 데루베니 무덤에서는 BC.4C말 무덤이 몇 기가 발견되었다. B 무덤은 호화롭고, 속에서 장년 남성과 젊은 여성의 뼈가 발굴되었다. 아프로디테의 거룩한 나무인 은매화 관을 죽은 여성을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ギンバイカ,common myrtle,学名: Myrtus communis, 은매화)</p>		<p>2 알렉산더대왕 머리,BC.340-BC.330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서 출토, 필리포스2세는 BC.338년 그리스 연합군을 이긴 뒤 올림피아에 동근 집을 짓고, 자신의 초상을 신전에 걸었다. 한편 아테네 사람들은 왕의 칭함에 따라서 왕과 왕자인 알렉산더의 초상을 자신들의 광장(αγορά, agora)에 걸었다 한다. 이 초상은 왕자 때의 알렉산더가 아닌 가 생각된다. 높이:35.0cm</p>
	<p>3 담쟁이덩굴 데아뎀(diadēma. 冠) 薦花文様を表したディアデマ(冠), BC.4C, 후반, 데루베니(Derveni, Δερβυνι, 고대 레테) 무덤B 출토, 길이:28.5cm, 높이:8.5cm 재료:금, 데살로니키고고학박물관 소장</p>		<p>4 피알레(Φιάλη, Phiale, ΦΙΑΛΗ) BC.325~BC.300년, 데루베니(Derveni, Δερβυνι, 고대 레테) 무덤B 출토, 지름:14.3cm, 재료:은, 금, 데살로니키고고학박물관 소장</p>
<p>8장, 헬레니즘과 로마, BC.323-,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 그의 후계자들이 세운 여러 나라가 서로 싸운 헬레니즘 때 그리스 예술은 널리 세계로 퍼져나가 다양성을 띠게 되었다. 그 가운데 놀랄만큼 사실적인 초상 조각과 관능적이고 섬세하며 우아한 여성 조각상이 대표적이다. BC. 31년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에 진 다음 지중해는 로마의 안 바다가 되었다. 그러나 정복자인 로마 사람들은 거꾸로 그리스의 미술이나 문화의 매력에 사로잡혔다. 로마 때의 초상 조각상이나 모자이크는 그리스 미술이 뒤에 오래도록 이어서 가꾸어왔다.</p>			
	<p>1 아르테미스 조각상, BC.100년 무렵 데로스섬(Δήλος, Delos), 디아두메노스(Diadoumenos) 집에서 출토, 작은 머리와 긴 목, 가는 어깨, 작은 가슴, 꾸며 내린 머리카락. 전통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ΑΡΤΕΜΙΣ, Ἄρτεμις, Artemis)이다. 용맹함이나 강력함은 없지만 헬레니즘 후기 특유의 우아함과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여성 조각상이다. 미로의 비너스와 똑같은 몸집과 분위기는 다르지만 같은 무렵 똑같이 키클라데스 여러 섬에서 만들어졌다. 높이:130cm, 재료:대리석.</p>		<p>2 돌고래를 탄 아프로디테 상 BC2.~BC.1C., 다소스 섬(Θάσος /Thasos,Thassos,381 km²,13,770人,2011년),포세이돈 신전 터 출토, 높이:35.0cm, 재료: 대리석, 아프로디테(ΑΦΡΟΔΙΤΗ, Ἀφροδίτη, Aphroditē)는 사랑과 아름다움과 성을 관장하는 여신이다. 다소스고고학박물관 소장</p>
			<p>3 군주 머리 조각상(君主頭部)BC.3C. 도데카네스(Δωδεκάνησα, Dodekánisa:Dodecanese,27104km²,20만명)제도, 카림노스(Κάλυμνος/Kalymnos)해안 발견, 높이:32.0cm, 청동위,카림노스고고학박물관 소장</p>